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 '자질 논란'

전문성·경영능력·병역기피·위장전입 등 집중 추궁 기본 현황 '깜깜'·추궁엔 "최송", "지적 달게 받겠다"

정상용(69)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경영 능력과 전문성 부족, 위장전입과 자녀 병역기피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공단 현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깜깜했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달게 받게 받겠다"고 대체적으로 시인했다.

인사청문 특위위원인 김광란(광산4) 의원은 10일 오전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경영능력과 전문성을 집중 질의한 뒤 "부도 전문가 아니냐"고 돌직구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05년부터 6년 간 사장으로 근무한 호주 호라이즌포프장이 2015년 5월부터 근무한 모 유한회사는 재직 4개월 만에 폐업하고 후 부도처리됐으며, 사단법인 문화국가포럼은 이사장으로 재직했지만 활동도 중단했고 단체 역시 유명무실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광주의 하루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 후보자가 "파악 못하고 있다"고 밝히자 "환경공단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하수처리와 함께 음식물폐기물 처리인데도 기본적 현황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안타깝다. 자질 문제다. 추가 질의할 가치조차 못 느낀다"고 전문성 부족과 청문회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법적기준을 묻는 조석호(북구4) 의원의 질의에는 "전문가가 아니라 용어가 서툴다"고 답했고, "음식물 자원화와 관련해 전국 우수시설들을 벤치마킹하겠다고 자기소개를 통해 밝혔는데 다른 지역에 광주와 유사한 시설들이 몇개 정도 있느냐"는 박미정(동구2) 의원의 질의에는 "잘 모른다"고 밝혀 준비 소홀과 전문성 부족을 동시에 노출했다.

자녀 병역기피 의혹도 제기됐다. 박미정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지난해 1월5일 병적 제적, 즉 국적을 상실했는데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만18세 시점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병역 회피 의혹이 짙다"며 질의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선까지 역임한 사람으로서 가정경제 사정으로 아들이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병역을 회피해 버린 과실에 대해 지적을 달게 받고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고 의혹을 시인했다.

20년 이상 주소지를 광주에 두고 있는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1995년 이후 20년 이상 광주가 아닌 서울에 주소지를 둔데 대해 정 후보자는 "5·18 유공자 의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식들에게 그것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주소지를 광주로 옮기지 않았다"고 밝히자 청문회 위원들은 "위장전입 아니냐" "광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면서 정작 가장 기본적인 주소지 등록과 납세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병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나오자 정 후보자는 뒤늦게 "주소지를 광주로 옮기겠다"고 백기를 들었다.

최영환(비례) 의원은 가족 금융거래 내역 부실 제출을 문제 삼으며 "준비 소홀"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배우자(호주 거주)의 금융내역이 전무하고 잔액 증빙서류만 냈는데, 자녀들 내역을 보면 배우자와 돈을 주고 받은 게 있고 해외거주자 할지라도 본인이 요청하면 언제라도 제출할 수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잘 몰랐다. 아내와 협의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광주일고를 나와 전남대 법학과에 입학, 1971년 교원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강제징집됐고 1975년 복학 후에는 다시 유신철폐 시위 등을 주도하다 제적당했으며, 2015년 뒤늦게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5·18 당시 전남도청 항쟁지도부 의무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육교를 치르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공기업인 뉴서울골프장 사장으로 재직했으며, 이후 호주 호라이즌 골프장 사장으로 6년 간 재직하던 뒤 2011년 귀국했다. 1988년 13대, 1992년 14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올 6월 지방선거 때는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다. 합평 출신으로, 전남대 출신인 이 시장과는 동향에 동문이다.

이 때문에 이사장 내정과 청문회 과정에서 지역 정치에서는 '보은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광주환경공단의 전신은 1977년 문을 연 위생처리장관리소로 3~4차례 조직통합과 명칭 변경을 거쳐 2013년 1월부터 지금의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효천 하수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영산강시설, 광주천 자연형하천 준공시설물, 광역위생매립장, 상무소각장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

서은홍 기자



경기 침체 속 오르지 않는 사랑의 온도계 10일 오전 서울 중로구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온도탑에 10.2도가 표시되고 있다.

광주 학교비정규직노조 노숙투쟁하며 처우개선 요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이어 10일부터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는 이날 오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임금교섭을 시작할 때 선거를 핑계로 미루더니 결국 2018년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불용 처리할 것 처럼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 노조는 "지난해보다 지방재정 보조금이 증액됐고 누리과정 예산도 100% 지급되는 마당에 광주시교육청이 진전된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4일째 광주시교육청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는 이날부터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노숙투쟁을 할 방침이다.

노조는 조리사, 과학실무사, 교육복지사, 방과후전담, 사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조경스프츠강사, 환경미

회원 등 27개 직종, 5000여 명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자격수당과 위험수당, 특별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해 호봉제인 9급 공무원 실수령액의 80% 수준까지 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직종별 수당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400억원 가량이 소요돼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조인호 기자

과일 노점상 금목걸이 훔쳐 도주 5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전통시장 노점상인의 금목걸이를 낚아채 달아난 혐의(절도)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50분께 광주 모 전통시장에서 과일 노점상인 B(60·여)씨의 금목걸이(400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과일을 고르고 있는 사이 뒤에서 금목걸이를 풀어 낚아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다른 과일 종류를 달라며 혼란을 준 뒤 범행했으며, 곧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버스 수화물로 필로폰 거래 50대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배달을 이용해 마약류를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로 배달된 향정신성 약품인 필로폰 0.95g(10회 투약분·15만원 상당)을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복역하다가 올해 1월 출소했으며,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인에 사는 A씨는 고속버스 수화물로 포장된 마약을 수령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마약 간이 시약검사서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압수한 필로폰의 양을 토대로 A씨가 본인이 투약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마약 유통 관련 첩보를 입수, 버스터미널 수화물보관소 주변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A씨를 긴급체포했다.

洞 행정복지센터서 행패 기초생활수급자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술에 취해 동(洞) 행정복지센터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5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월23일부터 29일까지 광주 서구의 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5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민취한 A씨는 행정복지센터 내 긴급 복지구조가 필요한 주민을 위해 마련된 쌀 보관함 앞에서 "쌀을 달라"고 요구하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올해 10월께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지원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쌀은 지원 품목이 아니다'며 민취하는 공무원들에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훔쳐 무면허 운전 중학생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야구 모임에 가려고 승용차를 훔쳐 온 혐의(절도 등)로 중학생 A(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달 17일 오후 6시에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사 앞에서 경차 주인 B(32)씨가 카를 쫓아둔 채 갑갑을 사리간 사이 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속이고 사적인 야구단에서 활동했으며, 야구단 모임 장소에 가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노조 소속 기사 국회 앞서 분신 사망

10일 국회 앞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조) 소속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분신을 사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5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최모(57)씨가 택시 안에서 분신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신호 대기 중인 차 안에서 몸을 시너를 끼얹고 스스로 불을 붙였다.

경찰은 최씨가 자신의 택시 안에서 스스로 불을 붙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택시 안에는 최씨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